

2019년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개최

부호장공파종회 파조 추향제 봉행



안동 권씨 파종 회장협의회 (회장 권인택)는 10월 24일 오전 11시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선성현 한옥 체험관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족간간 서로 만남으로서 각 파의 좋은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권기원 사무국장은 지난 3월 21일 태사묘에서 추향제를 봉행하는 등 7건의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대학생 11명에게 장학금 지급내역 공개, 권영동 감사의 감사보고, 각 파별 협의회 회비 납부 현황을 보고 한 후 임원개선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오수씨(동정공파 회장)가 권기호씨(북아공파 회장)를 추천, 차기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부회장은 권오수씨(동정공파 회장), 감사 권영택씨(정조공파 회장), 사무국장은 권기원씨(별장공파 부회장)를 유임시켰다. 이들 신임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권기호 신임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 협의회 회장들의 노고가 많았으며 앞으로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계동 대종회 고문은 "인기가 끝난 권인택 회장을 협의회 고문으로 추대할 것"을 제의하자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면서 찬성했다. 이어 회칙 <제11조 협의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라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은 "시조 및 낭중공의 춘추 향사때 각 파별로 유사를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권해욱 대종회 회장과 권기호 북아공파종회장은 행사장에 꽃바구니를 각각 보내왔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선성미정' 식당에서 짬뽕을 곁들여 점심을 먹고 선성현 문화단지로 이동했다.

파종회장단은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위치하고 있는 선성현 문화단지를 탐방했다. 지난 2015년 4월 착공한 이 문화단지는 사업비 3백40여억 원을 들여 5만㎡

부지에 옛 선성현을 복원하는 뜻에서 동헌(東軒), 객사(客舍), 역사관, 민가촌, 주막, 공원 등을 을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단지 안에는 안동호 위에 길이 1.1km의 데크 수상길을 만들어 수위(水位)의 변동에 따라 다리가 뜨고 가라앉는 구조로 만든 부교(浮橋)가 있다.

수상길을 답사한 파종회장단은 권영길 인문정신연구원장의 특별 배려로 장판각(藏板閣)과 유교문화박물관, 인문정신연구원을 둘러 보았다. 장판각에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인출하던 책판으로 국내의 305개 문중 및 서원 등에서 수집한 718종 6만4천2백여점이 보관되어 있다. 이곳 손성일 박사에 따르면 유교책판은 유네스코에 의해 출판문화사적 측면에서 그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으로, 2017년 10월 한국의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2016년 5월 한국의 편역과 2018년 5월 만민소를 아시아 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한다. 장판각을 둘러본 파종회장단은 유교문화박물관으로 이동, 직원 이승민씨의 안내를 받아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 고문서 등의 설명을 들었다. 일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길이 96.5m의 만민소, 노비매매문서, 징비록(懲禁錄) 등이다. 이 박물관은 지난 2006년 6월 완공한 국내 유일의 유교 전문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매년 기획 전시를 통해 예스러움과 격조를 갖춘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정신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1시간 가량 전시실을 둘러본 회장단은 유교박물관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후 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연수원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도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권영길 원장은 "경(敬)이란 무엇인가? 라는 등 책 3권씩을 참석자 전원에게 나누어 주고 모두 해산했다. <보도부장 권영진>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영진)는 파조의 여섯 번째 추향제를 10월 12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참제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했다. 역대 파종회장을 역임하였던 권병균, 권오정 고문을 비롯하여 권숙동 안동중친회장, 권주연 전 안동중친회장, 원로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춥지도 덥지도 않았지만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영향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 추향제를 봉행하는데 다소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날 분장례는 권중대 제례위원이 글을 쓰고 초헌관 권병문, 아헌관 권병근, 종헌관 권영상, 축 권중대, 집례 권오중씨가 각각 담당하였다. 700여 년 만에 파조 고유제를 봉행한 이후 올해로 여섯 번째 맞이하는 추향제에 헌관들은 검정색 제복(祭服)으로 같이입고 일원정 마루에서 참제원들과 함께 1시간 이상 추향제를 봉행하는데 흐트러짐 없이 파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다하였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병문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파조님 추향제에 참제원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봉행한대

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권영진 파종회장도 인사말에서 "바쁘신대도 불구하고 파조 추향제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봉행한데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영문 제례위원장은 "이번 추향제때 한자로 쓴 흘기를 한글로 번역해서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참제원들이 제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시도했으며 앞으로 매년 파조 추향제에는 흘기를 한자

와 한글로 병행해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병문 도유사가 성금 30만 원을 낸 것을 비롯하여 파내 6개 소문중, 개인 등이 모두 300여 만원의 성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추향제가 끝나자 참제원 전원은 화기에예한 분위기 속에서 육회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문 제례위원장은 권중대 제례위원이 글씨를 쓴 내년도 추향제 도유사로 선정된 권숙동 안동중친회장의 망기(望記)를 본인한테 보냈다. <보도부장 권영진>

검교공파종회 추향제 및 정기총회



권태강 회장(왼쪽)과 권무탁 신임 회장 인사인계



검교공파종회(회장 권태강)는 지난 10월 17일 오전 10시 경북 상주시 공검면 울곡리 소재 송덕산 파조(휘 척(偶))의 단소에서 파조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추향제는 초헌관 권오화(權五鶴), 아헌관 권병인(權丙寅), 종헌관 권영배(權寧培) 등으로 각각 분장하였다. 안동을 비롯한 영주, 성주, 예산, 아산 등 전국 각지의 후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향제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대종회 권해욱 회장은 화환을 보내주었다. 추향제를 마친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

회는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선조에 대한 묵념, 권태강 회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태강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여러분의 단합과 많은 협조로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고 금년 시조 추향제에 수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여러분 덕분에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춘식(92)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생활도덕상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권무탁(權武倬) 수석부회장(대종회 부회장, 대영고등학교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회

장으로 추대하였다. 신임 권무탁 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산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차근 차근 풀어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했다. 신규 회장 간 인수인계는 파종회 직인을 넘겨 주고 받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권태강 회장의 노고에 대해 큰 박수로서 치하해주었다. 신임 권무탁 회장은 권영호 총무부장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신임 감사에는 권용주, 권오수 2명을 각각 감사에 임명한 후 총회를 끝마쳤다. <총무부장 권영호>

2019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内



2019년도(權紀 1090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추향제 봉행 후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事蹟碑) 제막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100만 족친은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 시 : 2019년 11월 16일(토)
 - 시조 추향제 : 오전 10시 - 사적비 제막식 : 낮 12시
-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 ♣ 大 堂 會 : 2019년 11월 15일(금) 오후 6시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 / 안동 054-854-2256

- 시조 추향제**
초헌관 권태강 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회장
- 낭중공 추향제**
초헌관 권세목 대종회 전 부총재/전 도의원